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강한 노동시장: 5월 미 기업 33만9천개 고용... 실업률 3.7% 상승
- NYT: 강한 노동시장 지표, 연준 6월 금리 인상 중단에 '찬물'
- WSJ Real Time Economics: 부채한도 법안 바이든 서명만 기다려, 대학 학자금 융자 이자 동결 끝난다, 미 소기업들 대출에 비용 부담 커져 햄버거와 스테이크 가격 최고치, 미 공장재 수요감소 등

[미국 금융]

- Bloomberg: 월가, "금리 인상에 베팅하지만 6월은 아니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미 외식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인플레이 탃
- CNBC: 임금 인상, 대량 해고 부추길 수 있다
- Bloomberg: 아마존, 미국 프라임 회원에게 무료 모바일 서비스 제공 추진
- Bloomberg: "일본, 종신형 근무에서 업무 기술 중심으로 변화"
- CNBC: Meta "직원들 9월부터 주3일 사무실 출근하라"

[보고서]

- McKinsey & Company: 최고의 CEO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하는 방법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U.S. Labor Market Shows Resilience With Strong May Hiring

강한 노동시장: 5월 미 기업 33만9천개 고용... 실업률 3.7% 약간 상승

- 잇따른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 고공비행 속에서도 노동 시장을 견조한 것으로 다시 확인됐다.
- 오늘 금요일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5월 미기업들은 33만9천개의 일자리를 고용했다. 총 29개월 연속 매월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반면에 실업률은 3.7%로 상승했으나 (4월의 3.4%와 비교) 그러나 여전히 사상 낮은 수치를 보인다.

WSJ 기사

NYT: Strong Jobs Numbers Complicate Picture as Fed Hints at a 'Skip'

강한 노동시장 지표, 연준 6월 금리 인상 중단에 '찬물'

- 연준은 6월 13일부터 양일간의 FOMC 기간에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해왔다. 연속 10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 후에 인상에 따른 경제 여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 그런데 오늘 발표된 고용 관련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즉, 연준 입장에서는 상황이 복잡해졌는데, 지난 5월 실업률 상승에 임금 인상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자리 시장이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황을 보인 것이다. 고용 시장 데이터는 금리 인상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전히 긴축 정책을 취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NYT 기사

WSJ Real Time Economics: 부채한도 법안 바이든 서명만 기다려, 대학 학자금 융자 이자 동결 끝난다, 미 소기업들 대출에 비용 부담 커져 등

[부채한도 법안, 바이든 서명만 기다려]

- 상원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연방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31조4천억달러의 연방 부채 한도를 유예시키는 법안으로 수일내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다.

[대학 학자금 융자 이자 동결 끝난다]

- 오늘 8월 30일에 3년간의 학자금 융자 상환금 및 이자 동결이 끝나게 된다. 이에 따라 수백만명의 대출자들이 상환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동결 조치는 팬데믹 대응초지를 지난 2020년 3월에 시작되었었다.

[햄버거와 스테이크 가격 최고치]

- 앞으로도 비싸질 것이다. 이유는 소의 공급이 줄기 때문이다. 수년간 가뭄에 따른 사육 비용 상승에 팬데믹에 따른 생산 차질, 광범위한 비용 상승 때문에 목장주들이 가축을 팔아치우고 있다. 미국내 소 숫자가 거의 10년 만에 최저치라는 것. 미국 소고기 생산량은 2024년에 20억파운드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 이는 1979년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미 소기업들 대출에 비용 부담 커져]

-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차용 비용이 커지고 있다.

[미 공장재 수요 감소]

- 5월에 미 제조 활동이 위축되어 관련 제품 수요가 줄고 있다. 제조 활동 관련 ISM 구매 관리자 지수가 46.9로 나타났다. 7개월 연속해 확장파와 축소의 분기점이 되는 수치 50 미만을 보인다.

[서구 기업들, 탈 중국 대체 방안 여러군데 마련중]

- 지난 10년간 서구 기업들은 중국산 제조 대체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른바 China plus one. 그러나 중국으로 떠나서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이 여러군데 있어야 안전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China plus many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 베트남이 친 비즈니스 환경적이지만 충분한 숙련공이 없다. 인도는 풍부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약하다. 멕시코는 미국에 가깝지만 중국상 부품공급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다. 다양화 전략 이른다 multishoring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만큼 10년전에 비해 비즈니스 하기가 힘들어 진 것이다.

[미국 금융]

Bloomberg: Wall Street Betting on a Fed Hike, But Not in June: Markets Wrap 월가, “금리 인상에 베팅하지만 6월은 아니다”

- 월가 투자자들은 오늘 발표한 노동 시장 지표를 대한 반응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지만 6월에는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베팅하고 있다.
-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스와프 계약 상황은 연준이 6월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긴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연준의 양적완화 중단 가능성, 경제가 여전히 좋다는 신호, 대형주 랠리 등 때문에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한편 오늘 발표된 고용 지표에 따르면 5월 비농가 일자리는 33만9천개 늘었고 실업률은 3.7%로 상승했다. 임금 인상은 둔화상태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BC: Consumers are more likely to cut back on restaurant visits than trade down to fight inflation, report says 미 외식 더 줄어듦 것으로 보여... 인플레이션

- AlixPartners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식당 방문 횟수를 줄인다. 팬데믹 때 저렴한 레스토랑을 찾는 소비자의 패턴과 비교된다.
-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4월 외식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음식 가격은 7.1% 증가했다.
- 결과적으로 식당 방문 횟수가 줄었다. 1년 이상 운영된 레스토랑의 트래픽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 작년 12월 AlixPartners가 실시한 조사(두 가지 이상 선택 가능)에서 응답자의 74%가 외식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39%만 저렴한 레스토랑에 방문할 것이라고 답했다.

CNBC 기사

CNBC: Wage hikes may have been a key driver of inflation. They may now be fueling mass layoffs**임금 인상, 대량 해고 부추길 수 있다**

- 미국 경제는 2021년부터 인플레이션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물가 상승이 미국 경제의 큰 문제가 되었다.
- 인력 부족이 임금과 물가 상승에 기여했다.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했다.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구인난과 높은 이직률이 발생한 것이다.
-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우려되는 것은 임금-가격 스파이럴(spiral)이다. 이는 근로자가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임금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는 현상이다.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현상인 것이다.

CNBC 기사

Bloomberg: Amazon Is in Talks to Offer Free Mobile Service to US Prime Members**아마존, 미국 프라임 회원에게 무료 모바일 서비스 제공 추진**

- 아마존은 미국 프라임 회원에게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 핸드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선 통신 사업자와 논의하고 있다.
- 이 회사는 Verizon Communications와 T-Mobile US, Dish Network와 협상하고 있다. 이는 프라임 회원들에게 월 10불 혹은 무료로 요금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아직 출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통신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 없다”라고 아마존 대변인이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Japan Workers Are Shifting From Lifetime Employment, LinkedIn Says**“일본, 종신형 근무에서 업무 기술 중심으로 변화”**

- LinkedIn 일본 대표인 Wakana Tanaka는 일본의 노동 시장은 이미 평생 고용보다는 개인의 업무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 “일본이 전환점에 있다”며 “이 시대에는 끊임없이 업무 실력을 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또한 일본이 지속적인 성 불평등을 고치려면 업무 기술 기반 노동 시장으로 나아가야 하며, 기업은 근로자의 변화하는 가치관에 적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한편 LinkedIn은 근로자들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토록 일부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온라인 과정을 제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loomberg 기사

CNBC: Meta will require employees to return to the office three days a week starting in September

Meta “직원들 9월부터 주3일 사무실 출근하라”

- Meta는 직원에게 9월부터 일주일에 3일은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이번주 목요일에 알렸다.
- Meta 대변인은 “우리는 분산 근무에 전념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사무실과 집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직원들에게 협업과 관계, 문화 조성 등 최고의 업무 상태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델 개선에 힘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CNBC 기사

[보고서]

McKinsey & Company: Staying ahead: How the best CEOs continually improve performance

최고의 CEO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하는 방법

- **학습 아젠다 강화:** 최고의 CEO는 고객과 직원, 투자자, 애널리스트, 이사회 구성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나누는 대화가 성공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 **스위스 제약 회사 Galderma CEO Flemming Ørnskov**는 “나는 늘 환자와 의사를 만난다. 또한 과학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최신 연구 결과를 얻고, 연구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한다.
- **외부인의 관점 취하기:** 최고의 CEO는 외부에서 새로운 시각이나 입장에서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을 주기적으로 분석한다. 그들은 과거나 내부 충성심에 얽매이지 않는다.
- **반도체 제조 회사인 Intel 전 CEO Andy Grove**는 수익이 1억 9천 8백만 불에서 200만 불로 급감했을 때, 제 3자의 입장을 취했다. 결과적으로 Microprocessor라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Intel의 성공을 이끌어냈다.
- **S-curve 정의:** S-curve는 전략이 수립되고 이니셔티브(initiative)가 시작되면 초기 진행이 느린 기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뒤 initiative의 누적 효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한 뒤 가치가 형성되는 시기가 이어진다.
- 최고의 CEO는 학습된 아젠다와 외부인 관점을 결합하여 회사의 S-curve를 형성한다. Best Buy 전 CEO Hubert Joly는 회사에 전환(curve)이 필요

한 것을 느껴 '가격 보장 서비스 제공, 공급업체 파트너십 재창조' 등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Best Buy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McKinsey & Company 원문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상원, 부채한도 합의안 통과...바이든 "조속히 서명"

디폴트 우려 해소...바이든, 2일 대국민 연설 예정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담판 지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 1일(현지시간) 상원도 통과하면서,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사실상 해소됐다.

미국 상원은 이날 밤 표결에서 찬성 63표 대 반대 36표를 기록, 통과 기준인 찬성 60표를 넘겨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민주당에서는 찬성이 44명으로 반대 4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공화당의 경우 반대(31명)가 찬성(17명)을 앞섰다. 무소속 가운데는 찬성 2명, 반대 1명이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